벨라루스 사태에 대한 IMT의 입장글 2선

ELAS

- 인민들은 더이상 루카셴코 정권을 왜 신뢰하지 않는가?: IMT 성명문
- <u>파업의 물결, 정권 동요에 따라 솟구치다</u> : 최근 벨라루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반(反) 루카셴코 노동자파업에 대한 **IMT**의 기사

개인적 성향은 트로츠키주의(IMT가 아류라는 견해도 있음)라기보단 엠앨주의에 가깝지만, 현 정세판단에 있어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올려보는 글. 국제맑 스주의그룹 기관지 <맑스주의를 방어하며, In defense of Marxism>에 최근 벨라루스 사태에 대한 입장글 및 기사가 그동안 몇개 개제됐는데 제목 위주로 한번 소 개함. 좌익을 지향한다면 적어도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몰신화와 환상 대신, 시위가 어떤 경향을 지니고 종국적으로 무엇을 대변하는지, 어떤 소유체계를 대 변하는지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봄.

부연으로, 벨라루스 사태에 대한 국제맑스주의그룹(IMT)의 입장은 성명문에 드러나있듯,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됨:

- 정치적 총파업을!
- 루카셴코 정권 타도!
- 정치적 탄압에 맞서 인민에게 자결권을, 노동자조직의 자유를!
- 반노동적 조치 반대!
- 정치범들에게 자유를!
- 긴축정책·사유화 반대! 연금 수급연령 인상 폐지를 위하여, 무기계약을 위해!
- 인구 절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! 노동인민에게 노동자 평의회를!